



배포일시	2024. 2. 22.(목)	담당부서	기획운영팀장	오 윤 옥	062)607-5230
			언론보도담당	양 예 선	062)607-5233
자료구성	총 2쪽	보도일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직원들, 강 시장과 ‘공공기관 현장 대화’ 첫 사례로 대화 광주다움통합돌봄 시즌2 사업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혁신과제 논의 공공기관 통합 성공 일궈낸 직원들에 감사 표현

- 광주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공공기관 현장대화’ 첫 상대로 나서 광주다움통합돌봄 시즌2 지원사업과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2일 오전 서구 치평동 광주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에서 강 시장과 직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주요 사업과 기관통합 과정, 건의사항 등을 주고받으며 광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협업을 강화해나가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개개인의 돌봄에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 시즌1’을 확장해, 복지사각지대를 알뜰히 살필 수 있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으로 끊어진 관계를 잇고, ‘기술’로 관계의 공백을 채우고, ‘마을’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게 광주사회서비스원도 함께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직원들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인만큼 광주시와 협력하여 긴밀한 지역 협력 체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통합 돌봄의 궁극적 목적인 돌봄의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일궈내겠다고 화답했다.
- 또한 직원들은 권역별 지역대학과 협약, 대학생 돌봄 파트너를 양성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보살피는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기관과 종사자의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인공지능 IoT기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시민을 관리하는 등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인 빚고을타운, 효령타운, 안심돌봄센터, 빚고을50+센터 등도 자리에 함께 하며 △이용자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상호 안부 묻기 △빚고을50+일자리를 연계한 돌봄 프로젝트 등으로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
- 강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일궈낸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와 포용의 자세에 감사를 표시하며, 이러한 혁신이 시민의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지난 2020년 개원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시 출연기관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긴급돌봄사업과 서비스영역 품질관리, 민간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등을 수행중이며, 최근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 중 최초로 구조혁신 노·사 합의를 이뤄 지역사회에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붙임 공공기관 대화의 장 사진자료 1부.

보도자료 배포용 jpg



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 현장대화